

도출된 평가지표의 대분류와 중분류의 정의 및 범위를 토대로 향후 생태문화도시의 평가지표를 지수화 하기 위해 AHP 분석을 통해 우선 순위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대분류에서 환경과 인간의 조화 0.349, 도시의 문화, 환경자원 0.266, 도시환경 및 문화의 질 0.208, 역할 분담 및 주민 참여 0.177의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중분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역할 및 주민참여 부문에서 지구환경 보전 및 인프라가 0.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중치 산정에서는 환경과 인간의 조화 정책 및 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체계적인 적용방법을 설정하고자 세부지표의 정의, 측정단위, 지표 선정 필요성, 목적, 적용범위, 가중치 산정방법 설정을 제시하였다. 생태문화도시 평가지표를 연구대상지인 강동구에 적용하기 위해 국가 통계포털, 강동구 통계정보조회 시스템, 강동구청, 법제처,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서울통계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자료를 수합하여 세부지표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황분석 결과 대부분의 지표가 강동구청 통계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구축되고 있었으며,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일부 문화적인 요소는 정성적인 평가 또는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새롭게 DB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 적용을 통해 지표의 적용 범위와 생태, 문화 환경을 영위하는 인간의 생활 또는 능력을 가산점으로 제안하였다.